

사회

전남 '구제역 청정' 지키기 안간힘 쓰는데 ...

방역 소독약 피하기 암체운전 이라니

서행 무시·중앙선 넘기·마을길로 돌아가기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사의 소독약을 피하려는 암체 운전자들이 늘면서 방역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전남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방역초소 운영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상당수 운전자들이 이 소독약을 피하기 위해 과속하거나 아예 중앙선을 넘어 소독 분무대를 피하는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차질 청정지역인 전남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

는 방역초소는 모두 255개소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방역초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광주에서 나릿재 터널을 넘어 화순읍으로 진입하는 이십곡리 초소. 속도방지턱이 없는 이 초소에서는 소독약 분무기 앞에서 서행을 하지 않고 과속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다반사였다.

소독약이 정상 분량의 3분의 1도 되지 않아 효과 자체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삼한 운전자는 분무기 앞에서 정차한 후 초소 직원에게 "분무된 약이 차

랑 앞유리를 가려 사고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꺼야"라며 분무기를 꺼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대와 도곡운전 중간에 있는 화순 영남 초소는 더욱 심했다. 차량 운행이 크게 많지 않은 이곳에서는 초소 앞 50m 전방에 설치된 서행 유도 입간판을 무시한 채, 초소 앞에서 초고속으로 달려 분무역을 덜맞기 위해 잔머리를 쓰는 것은 기본. 왕복 4차선 도로면 초소 근처에는 중앙분리대가 없다 보니 분무기 앞에서 눈치를 보다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는 차량도 하루에 50여대 가까이 됐다.

초소 40m 전방부터 속도방지턱이 2개나 차례로 설치된데다 한 차선만을 이용토록 만든 나주 남평을 남평검문소 초소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듯하다. 그러나 근처 지리를 잘 아는 운

전자들은 초소 50m 전방에서 인근 마을로 진입, 동네길을 이용해 방역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했다.

화순 영남방역초소 김모(57)씨는 "지난해 말부터 두 달 가까이 방역초소를 지키고 있는데, 소독약을 피하기 위해 빈틈을 노리거나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운전자가 한 둘이 아니다"며 "고급 수입차와 세차한 차일수록 그런 행태가 많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가금류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등 AI와 구제역 발생이 다소 소강상태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며 "각 방역초소에는 방역강화를 재차 지시하는 등 종식 선언이 나올 때까지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목포경찰, 무고한 시민 용의자 몰더니

흥기 노출 수배 전단 말썽

전단지 흠피에도 딱워

편의점 강도 사건을 수사중인 목포경찰이 최근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팔을 꺾는 등 무리한 수사로 비난을 산데 이어 이번에는 흥기가 고스란히 노출된 공개수배 전단을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한 달새 목포에서 발생한 2건의 편의점 강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 CC(폐쇄회로)-TV에 찍힌 용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공개수배 전단지 5000여장을 제작했다.

A4용지 크기의 종이에 사진 4장이 실린 공개수배 전단지는 목포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상점 등에 배포됐으며, 경찰은 이 전단지를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도 띄운 상태다.

그러나 경찰이 제작한 공개수배 전단지에는 2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흥기를 들고 종업원을 위협하고 있는 사진 2장이 모자이크 처리없이 그대로 인쇄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 이 사진 2장 가운데 1장은 화면이 약간 흔들려서 흥기가 크게 부각돼 보이는 등 섬뜩한 장면이다.

이를 본 시민 김모(54)씨는 "강도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흥기가 지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낼



흥기를 들고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고 있는 용의자 수배 전단의 사진.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은 흥기.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혹시라도 아이들이 보게 될까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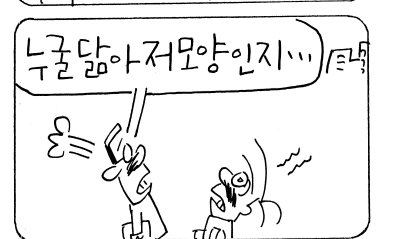
이에 대해 목포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찍어진 실수인 것 같다"며 "최근 흥기를 지운 전단을 새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경찰은 지난해 22일과 26일 각각 목포시 용담동과 상동의 편의점 2곳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23일 목포 상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범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모(32)씨의 팔을 비틀어 꺾는 사실이 알려져 반축을 사기도 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나원침 (8250) 김종두



택시기사 폭행 20대녀

출동 경찰관에도 주먹

광주서부경찰은 21일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김모(여·23)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0시5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차킨가게 앞에서 서부서 상무지구대 소속 최모(46)경사의 팔을 입으로 물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술에 취해 북구 용봉동에서 택시를 탔다가 요금 문제로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경사가 자신을 연행해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우울한 마음에 술을 마셨는데, 경찰이 끌고가려고 하자 순간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감자 도둑' 오인 이웃 주민 뺨 때려

공원 공터에 감자를 심어 놓은 60대가 감자밭을 구경하던 이웃 주민을 도둑으로 오인해 주먹을 휘둘렀다가 경찰서행.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임모(66)씨는 지난해 20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공원에서 자신의 감자밭을 둘러보고 있던 강모(64)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 공원 공터에 지난해 감자를 심은 임씨는 강씨가 자신의 감자를 훔치는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 강씨는 경찰에서 "공원에 감자가 나와 있길래 신기해서 쳐다본 것 뿐"이라고 설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대낮 아파트 강도

광주 일곡동 ... 택배 가장해 침입해 주민 폭행

금품은 가져가지 않아

21일 오후 2시께 광주 서부 일곡동 모 아파트 김모(여·20)씨의 집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침입해 김씨와 김씨의 할머니를 폭행한 뒤 달아났다.

범인은 택배회사 직원인 것 처럼 가장해 김씨의 집에 침입한 뒤, 김씨와 할머니의 양손을 결박하고 폭행하는 등 2시간 동안 강도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범인이 "내가 사채 빚을 졌

는데, 빚을 해결하려면 너를 성폭행해야 한다"라고 말한 점과 현금이나 물품을 전혀 가져가지 않은 점으로 미뤄 정신질환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동종전과자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 아파트 내·외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화면 확보에 나서는데,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복지시설 생활 50대 남성

실종 3개월 만에 변사체로

광주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해 오던 50대 남성이 복지시설에서 사라진 지 3개월여 만에 변사체로 발견됐다.

지난 20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 서부 동구 용산동 희망원 내 언덕길에서 이모(59)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희망원 측에 따르면 이씨는 알콜중독 증세를 보여 지난 2009년 7월께 이

시설에 입소해 생활해 오던 중 지난해 11월말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셨다"는 주변인의 진술 등에 따라 이씨가 철조망을 넘어 희망원 밖으로 나가려다 비탈길에서 밧을 헛다며 사 등산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애국지사 최창모 翁
교통사고 당해 부상

21일 오전 10시10분께 광주 서부 구 용봉동 모 마트 인근 앞 도로에서 애국지사 최창모(88)씨가 주행 중인 19번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최씨가 머리 등을 다쳐 광주 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공로와 6·25 전쟁에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건국포장(1994년)과 무궁화장 훈장(1950년)을 받았다.

현재 광주와 전남·북지역에 생존한 애국지사는 모두 14명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시교육청 비위 사무관
경찰 수사 착수

광주시교육청이 비위 의혹으로 고발한 사무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광주의 한 고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최모(48) 사무관이 학교 비품 등 구매 계약 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했다.

경찰은 최 사무관이 근무했던 고교와 계약을 맺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고발장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사무관을 해임 의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고유가 극복... 대중교통 이용" 광주 서부 새마을회원 30여명이 21일 오전 백운 교차로 앞에서 운전자들에게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절도 신고했더니 범인은 동거녀

낙태 사연에 통한의 눈물

자신의 돈을 동거녀가 훔친 줄 모르고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20대 남자가 눈물로 동거녀의 선처를 호소해 경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강모(22)씨는 자신으로 인해 임신한 동거녀가 낙태를 위해 돈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정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절도 사실을 부인한 만큼 용서해달라고 경찰에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초 이모(여·21)씨와 광주 서부 한 모텔에서 동거생활

을 시작한 주점 종업원 강씨. 얼마 후 그는 동거녀 이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가 임신 5개월째던 지난해 10월 일을 마치고 퇴근한 정씨는 모텔방에 있던 돈 87만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곧장 돈을 행방을 묻은 강씨는 이씨로부터 "어제 모텔에 놀러왔던 친구가 가져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강씨는 수 차례 이씨의 친구를 불러 확인해봤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당시

이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수사는 아무런 소득 없이 약 4개월 동안 계속됐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씨의 친구가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 20일 이씨가 수십만원의 돈을 주고 낙태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낙태비용의 출처를 캐물었다. 경찰의 추궁을 받던 이씨는 결국 "낙태 수술 비용이 없어서 남자친구의 돈을 몰래 사용했다"고 털어냈다.

광주서부경찰은 21일 남자친구의 돈을 가져간 강씨의 여자친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김영편입학원

www.kimyo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일